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제61회 학술대회 참관기

# 전세계 불교학자 한자리에

## ● 일본인도학불교학회의 연혁과 현재

일본인도학불교학회(이하 인불학회)는 1949년 도쿄대학 당시 교수진을 중심으로 개최된 제1회 창립회의 이후 1951년에 미야모토 쇼손(宮本正尊) 도쿄대학 교수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정식 발족했다. 인불학회는 그 이듬해 바로 전국학회로 승인되면서 제2회 대회서 75명이 발표했다.

초대 이사장 미야모토 쇼손(宮本正尊)(1951~1983)에 이어,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1983~1991), 마에다 센각(前田專學)(1991~1996, 1999~2003), 에지마 야스노리(江島惠學)(1996~1999), 기무라 키요타카(木村清孝)(2003~2008) 등 일본불교학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인불학회의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는 사ито 아키라(齊藤明) 도쿄대학 교수(2008-)가 학회장을 맡고 있다.

인불학회의 회원수는 금년 8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2270명이다. 이 숫자는 불교학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학회로서는 일본 최대규모이다. 그 가운데는 해외연구자도 82명 포함돼 있다.

또, 개인회원 외에 유지회원이라는 단체회원제도가 설립돼, 불교학 관련 학과를 가진 대학이나 불교학 연구를 주로 하는 66개 연구기관이 이름을 올려 놓았다.

학술대회는 개인연구발표 중심이지만, 올해부터는 주회 학교가 독자테마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부회를 설치해 매년 특색 있는 회의로 변모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매년 토론회를 도입해 보다 테마 기획성이 높은 최첨단의 연구를 학술대회에 반영하는 방법도 모색했다. 학술대회 결과는 <인도학불교학연구>라는 잡지에 게재된다. 현재 이 내용은 PDF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불학회는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학회의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중심이 돼 인도학불교학 논문데이터베이스(INBUDS)와 대장경텍스트데이터베이스(SAT)의 자료를 제공 중이다. 이것은 수시로 갱신돼 새로운 학술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상세한 정보는 학회 홈페이지(www.jaibs.jp)를 참조.

불교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를 통틀어서 일본의 학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일본인도학불교학회는 매년 가을 2일간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61회째를 맞은 올해의 일본인도학불교학회는 9월 10~11일 도쿄(東京)의 릿소(立正) 대학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9개 일반부회와 특별부회에서 249명이, 4개의 패널 토론에서 21명이 발표했다.

일반부회는 일반 발표참가자들을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해 배정한 발표분과이고, 특별부회는 일반적으로 개최하는 학교의 특성 등 학회 주제 축에서 기획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하는 발표분과이다. 패널발표는 회원들의 요청을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성하는 것으로 4~5명 정도의 발표자가 특정주제를 다루는 형태이다.

특별부회는 학회 내의 특별 주제로 학회 기간 동안 한 부회가 운영된다. 반면에 패널 발표는 학회 공식발표 일정이 끝나는 둘째 날 오후에 진행된다. 2009년의 경우 금강대에서 개최됐던 <대승사문현의기>와 그 주변' 주제의 논문 4편이 그 중요성 때문에 별도의 패널로 구성돼 다시 발표되기도 했다. 패널 발표는 형식과 시간의 제약이 덜한 편이고, 논문의 게재 여부 역시 해당 패널팀 의사에 따른다.

올해 대회에는 270명의 발표자들이 참가했다. 명예교수부터 대학원생 신분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층위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그 내용 역시 인도학과 불교학에 관련한 동서고금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본인도학불교학회라는 단일학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와 그 스펙트럼의 다양성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그 가운데 한국인 발표자는 12명이었고, 금강대에서 5명이 발표에 참가해 국제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첫날은 권민준 교수가 '삼매와 화엄세계의 관계'를, 김천학 소장이 '화엄십현의사기'에 인용된 일본 초견의 중국화엄문헌'을, 김재권 HK연구교수가 '중번분별론'에서의 아라야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천학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사본에 인용된 화엄교학의

##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일본학회 최대 규모 논문 270편 발표... 한국인 학자 12명 참가

중요문헌인 <법계관문>이 현재 알려져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어구임을 통해, <법계관문>의 성립과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일본의 화엄학 연구를 이끌어온 요시즈기 에이(吉津宜英) 고마자와(駒澤) 대학교수로부터 <화엄십현의사기>의 성립년대 확인과 함께 급속 상세한 보고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째에는 최영 HK교수가 '초기중국불교에서의 소승불교 수용'을, 석길갑 HK교수가 '진지·연지와 이장·이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두 발표는 서구의 연구자들로부터 질문과 의견이 줄 잇는 등 학회 발표장은 국제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이 외에도 중앙승가대 본각 스님이 '화엄경'에서의 중도논리를, 동국대 한보광 스님이 '조선, 정관일선의 정토관'을, 위덕대 이태승 교수가 '근본중송'에 나타난 실제개념 및 그에 대한 비판'을 발표했다. 일각 각 대학에서 유학 중인 한국 발표자도 다수 있었다.

일반부회와 특별부회는 발표시간 15분, 질문토론은 5분으로 아주 짧게 진행된다. 다만, 이런 짧은 시간에 명확한 논지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자가 한 곳에 모여 자신의 연구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일본인도학불교학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첫날의 저녁시간에는 학생식당을 회장으로 사용해 리셉션이 열렸다. 참가 인원을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발표자와 참가자, 관계자가 추측컨대 300인 이상이 참가했으리라 짐작된다. 회장의 분위기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이야기로 고조됐다. 우선, 학회 이사장 사ито 아키라(齊藤明) 도쿄대학 교수, 前 회장인 기무라 키요타카(木村清孝) 쓰루미(鶴見)대학 교수(도쿄대학 명예교수) 등의 인사가 이어졌다. 학회에 유지회원(단체회원)으로 새로 가입한 금강대 소개를 겸해서 김천학 소장에게도 마이크가 넘겨졌다. 그 자리에서 김천학 소장은 새롭고 화음이 된 것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회장의 참가자로부터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아마구치 히로에(山口弘江,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 ● 한국 불교학계와 인불학회의 현재와 미래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인불학회에는 많은 해외회원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접하는 위치는 특별하다. 이것은 그대로 발표자수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한 유지회원은 동국대, 중앙승가대, 원광대, 동야대, 금강대, 대한전통불교연구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 7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 2002년에 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의 대학인 동국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한일 상호간의 기념비적인 성과이다. 지금까지 한국불교학계는 인불학회의 주요 멤버로서 존재감을 각인시켰지만, 이러한 공적은 주로 일본에 유학해 귀국한 한국내 연구자들의 공적이 크다.

향후에도 이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한·일 불교학계 교류가 촉진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호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들이 참가할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불학회는 석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이라면 발표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개인부회에서는 각 대학 박사과정에 재직하는 학생들의 학회 데뷔 발표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또한 인불학회 홈페이지에서는 "일본에서의 인도학과 불교학 연구의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 관련분야 학자들과도 연계하여 세계문화의 발전과 공역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됐다"고 명기돼 있는 것처럼 인불학회는 학문의 국제교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사실 인불학회에는 해외 발표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어 발표도 가능하다.

인불학회 구성원들은 일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 뿐만 아니라 의욕적인 한국 내 대학원생이나 서구의 젊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갖고 발표에 참가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상호의 연구 정보를 교환하기를 기대한다.

물론 학회 연회비(6500엔), 대회 참가비(2000엔)에, 일본까지 가는 교통비, 체재비 등 경제적인 부담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하다. 하지만 우수학생에게는 해당 대학이 적극적으로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연구 환경이 갖춰진다면, 한일의 최선의 연구동향을 서로 누리고 새로운 학문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신물크기(소) 3.5 x 5cm (중) 5 x 7cm

금강현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요품

복상불소영  
장의량장가  
의식식사용  
의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르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늘 ●오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할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질 후 증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복대 의료기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성인증

신안철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해 줌으로써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양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 일일금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